

## (가칭)협치성북민간추진단 준비위원회 2차 회의록

일자 12/21(수) 13:30

장소 고려대학교 산학관 5층 중회의실 ※(사)전국독서새물결모임 제공

참석(준비위원) 김기민(\*성북동천), 김종환, 김태석(월곡1동주민자치위원),

김희자(정릉2동마을계획단장), 박정근(성북구걸지우연합회),

박정애(사.전국독서새물결모임), 박현수(혁신교육), 이선영(손만세), 최조향(정윤주 찾동  
부단장 대리참석), 홍수만(\*성북마을살이연구회) 등 10명

위임 길정수, 송민기, 최도용 님 등 3인

신규 이종안(정릉2동주민자치위원), 한정혜(정릉2동마을계획단) 등 2명

참관 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과 마을기획팀장(은현기), 기동민 국회의원실 보좌관(박우형)

기록 김기민

- 신규 준비위원 참여자 소개
  - 이종안 : 정릉2동주민자치위원회 총무,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
일자리분과위원장,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장으로  
활동중. 협치가 잘 이루어져서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길  
희망합니다.
  - 한정혜 : 정릉2동 마을계획단 분과위원장. 다양한 분야, 많은 분들이  
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 많이 못오신 것 같아 아쉽다.  
열심히 듣고 참여하겠습니다.
  - 이종안, 한정혜 님 준비위원 참여 확정.
  - 12/21 기준 신규 준비위원 2인 포함 총원 25명, 성원 기준 13명 이상(과반수)
- 성원 기준 관련 논의 : 송민기, 최도용 님 등 불참자들의 위임을 받아 성원 된 것으로  
보는 것으로 하자.
- 운영 규약 검토 및 논의
  - 전문 : 추진단의 목적, 비전 - 이의 없음
  - 제1장 총칙
    - 제2조 목적. '주민'의 정의,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넣자. (이종안)
  - 제2장 회원
    - 제8조 단체회원
      -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의결권을 동일하게 보는 건 형평에 맞지  
않다. (이종안)

- 단체 규모도 상이한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지 않나. (한정혜)
- 회원들이 분야별 분과 활동을 통해 단체들을 추진단에 초대하고 섭외하는 형태, 협치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. (박정근)
- 추진단이 실무 역할이 클 것 같다. 개인회원 기반으로 가고, 분야별 영역별 활동을 통해 단체, 개인들을 접촉해 나가는 게 좋겠다. (김기민)
- 중복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는데, 구분하기 어렵다. 개인회원 기본으로 가고, 단체 대표로 오든 개인으로 오든 납부 회비를 기준으로 1표의 의결권을 갖는 게 좋겠다. (김태석)
- 투표
  - 1안. 원안대로.
  - 2안. 개인, 단체회원 구분하여 받되 단체회원은 회원 규모에 비례하여 의결권 부여한다.
  - **3안. 개인, 단체 구분 없이 개인회원 기초로 한다. (확정)**
- 제10조 회원의 징계.
  - 공개 사과 원칙 삭제
  - 징계 당사자의 소명 기회 보장
- 제3장 총회 - 이의 없음
- 제4장 분야별 분과 모임 - 이의 없음
- 제4장, 제5장 순서 변경. 분과위원회보다 운영위원회 위상이 더 높기 때문에. (이종안)
- 제5장 운영위원회
  - 제23조 운영위원회와 회의.
    - ③ “소속 분과의 구성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”
    - ⑤ “발언권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”
- 제6장 회비와 재정 - 이의 없음
- 제7장 감사 - 추가
- 조직 체계 및 분과 구성(가안)
  - 교육 : 혁신교육 등 (정윤주, 미정)
  - 도시재생 :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등 (이선영)
  - 문화예술 : 공유성북원탁회의 (김경서, 박현진, 이원재 님 등, 미정)
  - 마을미디어 : 성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(김종환)
  - 보건복지 : 지역복지관, 찾동 복지팀 사업, 다문화 + 건강 : 걸기 동아리, 보건소 등 (김태석)
  - 사회적경제 : 일자리 등 (박정애)

- 안전 (미정)
- 생태환경 : 에너지절약, 햇빛발전 등 (박영기, 미정)
- 주민자치 : 마을계획, 주민자치위원회, 주민참여예산위원회, 통반장협의회, 기타 직능단체 등 (이종안, 한정혜)
- 전통시장 (박정근)
- 인권 : 성북구인권위원회, 성북시니어인권모임 등 (박현숙)
- 청년 (미정)

- 기타

- 1차 회의 때 2차 회의 일정 모두 합의하여 결정했는데, 오늘 회의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.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. 다만 오늘 인원이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주요 사항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. 다음 회의에 과반 이상 참석하도록 하고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. (박정근)
- 다들 바쁜 일정에도 불가하고 왔다. 불참한 분들까지 고려하면 진행이 어렵다. 오늘 시간 내 참석하신 분들도 바쁜 와중에 오셨다.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를 정해놓았으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. (박정애)
- 오늘 참석한 분들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.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결정하고, 그 내용에 대해 공유하면 된다. (김희자)
- 꼭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은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내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. (박정애)
- 협치의제 사업 관련 공유 (홍수만)
  - 6월 공고, 9월 선정
  -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굳이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.
  - 길음중학교 선정 이유 : 제안자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실 제안 사업.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협치 의제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하고, 행정 주도로 제안해서 선정되는 방식은 거버넌스의 취지에 맞지는 않다고 본다.
- 마을민주주의과 마을기획팀 코멘트 (은현기 팀장)
  - 규약은 간소하게 가고,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담는 것이 향후 운영을 위해 좋을 것 같다.
  - 행정과 협업, 협력할 수 있도록 민간 네트워크도 행정 시스템과 원만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분과 구성시 행정 시스템을 고려하여 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 같다.
  -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내 공실에 (가칭)협치성북민간추진단 사무소 두면 어떨지. → 현재 입주자 모집 중인데, 지원 자격이 엄격하여 법인격 갖추고 있지 않은 추진단 준비위원회로서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다. (최조향)
- 박우형 보좌관

- 기존 거버넌스 조직, 사업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궁금하다.
- 한시적인 조직이 될지 오래 갈 조직이 될지는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.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.
- 서울시, 성북구의 변화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.

- 3차 회의

- 일정 : 17/1/4(수) 13:30 장소 미정(김태석 님 섭외)
- 안건 : 분과 구성 및 조직화, 규약에 들어갈 포괄적 개념의 활동 및 사업